

麗丹貿易考

李 龍 範

一, 序 言

二, 麗初의 女眞羈縻와 契丹關係

三, 江東六鎮과 麗丹의 貿易

四, 兩國貿易의 主體

五, 結 言

一. 序 言

韓民族과 北方隣接民族間의 接觸은 韓民族에 있어서는 開闢以來부터 繼續되어 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특히 麗丹兩國은 거이 同時에 建國된 新興國家로서 中間에 介在하여 兩國間에 緩衝地帶을 形成하고 있던 渤海가 契丹太祖 阿保機에 의하여 滅亡된 天顯八年(九二五年)부터는 서로 國境線을 같이하여 對峙하던 極東方面의 兩大勢力으로서 境界線問題, 女眞族에 對한 羈縻權의 歸屬等 直接的인 利害關係는 建國初부터 兩國間에는 이미 熾烈한 紛爭이 內包되고 있었으며 드디어 韓民族으로서는 史上에 最初로 北方民族의 正朔을 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多年間에 걸쳐 紛爭과 姑息的講和를 反復하던 兩國間의 國交였지마는 生活를 豊富히 하려는 相互間의 試圖은 여러形式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主要한 手段이 物資의 相互交易이 었던바 이에 權場貿易 또는 使臣의 夾帶貿易, 密貿易等, 往時의 麗丹間에서 行하던 貿易方式과, 그變遷을 主로하여 交易되던 品目等を 略述함으로써 兩

國의 經濟生活의 一面이나마 描寫하여 보고저 하는바이다.

二. 麗初의 女眞羈縻와 契丹關係

高麗太祖는 그의 詔文中에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下略)
(註一)

이라하여 女眞人의 經濟的利得만을 追究함을 憤激하였으나 그의 政治의 偉業으로 後世에 기리 남을 業績은 高句麗滅亡後 長久間 無主의 地도化한 東西兩北面의 開拓經營과 多少의 經濟的損失을 知悉하던 셔도 이兩方面에 居住하던 女眞人을 招撫하여 이미 開拓한 地域을 確保한 것이라하겠다.

특히 太祖는 女眞人의 戰鬥力을 그의 統一事業에 가장 有利하게 利用한 者로서 甄萱의 長子 神劍과 戰局의 大勢를 決定하는 一利川의 會戰에 臨할때의 그의 兵力配置에는 黑水. 達姑. 鐵勒諸蕃의 勁騎九千五百 步騎三千이 中軍에 參加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古代부터 널리 알려진 女眞馬 一萬匹을 輸入하여 騎兵을 編成하는等 그의 包容力과 政治의 手腕을 充分이 發揮하였던 것이며 太祖의 先見의 明은 兵站基地로서 女眞居住地域과 戰鬥力으로서의 北狄女眞人의 利用價値를 統一以前부터 充分이 認識한듯 하며 이로서 그는 韓半島를 統一한 後에도 女眞에 對한 招撫와 北界 拓地策을 繼續強行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高麗建國을 前後하여 일찍이 보지 못하던 北方民族에 對한 關心을 보이고 있던 太祖가 東蒙古一帶를 占有하고 建國初인 天授八年에는 渤海를 席捲하여 北方民族의 中心勢力으로서 高麗와 國境을 같이 하게 된 契丹民族에 對하여는 無關心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推測되나 史料의 缺乏으로 究明한 道理가 없다.

遼史에서 斷片的이나마 初期의 麗丹兩國交涉에 關한 史料를 徵하여 보면 遼史(卷一) 太祖即位九年十月戊申條에

「釣魚于鴨綠江 新羅遣使貢方物 高麗遣使進寶劍」

이리하여 太祖阿保機의 鴨綠江釣魚時에 新羅와 高麗의 遣使가 있었던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이는 現 韓滿國境上의 鴨綠江이 아니고 契丹聖宗太平四年에 混同江으로 改稱된 松花江上流의 部分名인 當時(註四)의 鴨子河의 土名임을 白鳥尊士에 의하여 言語學上으로 論證된 바 있거니와 況且契丹太祖即位九年은 國內 騷亂하던 新羅神德王四年에 該當(註五)하여 新羅의 進貢이 있을理 없으며 高麗는 太祖建國三年前에 該當됨으로 그의 進貢은 信憑할수 없거니와 이는 亦是 太祖建國前의 高麗入貢을 記錄한 것으로서 遼史(卷一) 太祖本紀神冊三年二月條에

「吳越 渤海 高麗 回鶻 阻卜 黨項及幽鎮・定・魏・滄等州各遣使來貢」

이라고 하는 類에 屬하는 그當時의 契丹民族의 地理的知識範圍內의 諸國을 漫然히 羅列하여 建國初의 自國國家的優位를 虛飾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이 建國前인 高麗의 入貢이 遼史에 二回나 記錄됨은 契丹으로서도 高麗에 對하여는 建國初부터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었던 證左가 아닌가 推測되며 이는 契丹이 渤海를 討滅하던 三年前인 高麗天授五年二月에 契丹馬와 氈을 高麗에 進함이 高麗史에 記錄되어 있고 또 遼史에는 太祖阿保機의 渤海遠征을 致行하던 契丹 天顯元年(註六)에 그의 遠征地인 忽汗城 滯留期間에 高麗를 爲始한 近隣女眞의 進貢(註七)을 記錄하고 있음을 보면 契丹의 渤海討滅을 前後하여 兩國間에 어느 程度의 接觸은 있었지 않았던가 推測되는바이며 高麗太祖가 그의 末

년에 契丹民族에 對한 極度の 憎惡感에서 取하게된 契丹所遺棄五十匹의 遺棄事件은 그理由로서 契丹의 渤海討滅에 對한 一時的感情에 불과하고 있으나 이미 建國前부터 北狄利用과 領土開拓에 能熟한 手腕을 (註八) 보이고 內로는 新羅의 舊勢力을 包攝하여 複雜한 諸般事態를 收拾하던 高麗太祖가 오로지 隣接國家의 滅亡에 對한 同情만으로서 強大國 契丹을 相對로 不利한 外交策을 強行할理없는바 이는 高麗太祖가 其間 契丹에 對한 接觸의 經驗에서 體得熟考한 政治的 經濟的得失을 看破한 行跡으로 볼것이며 其文面に 「遂絶交聘」이라 한것은 보면 高麗史와 遼史에 그記載가 漏落된 或種의 交渉이 있었음을 臆測한다.

그러나 以上諸例에 그치는 麗丹兩國의 初期 外交關係는 어느程度의 展開는 보이고 있었다하더라도 그가 經濟的인 利害得失은 土臺로한 證左가 보이지 않는以上 一種의 儀禮的인 接觸에 지나지 않았다고밖에 볼수없다.

麗丹兩國이 經濟的 政治的土臺를 基盤으로 하는 外交樹立은 高麗太祖가 一方的으로 對契丹斷交策을 強行한後 約半世紀를 經過한 成宗十二年의 契丹策에 依한 第一次 高麗侵入以後부터라고 할수있다. 契丹이 聖宗의 卽位를 契機로하여 그의 統和二年二月(成宗三年)及 同三年八月(成宗四年)에 二回에 걸쳐行한 大規模의 鴨綠江邊 女眞의 討伐과 高麗의 第一次侵入에 關한 事情에 對하여는 이미 池內 和田兩氏에 依하여 精細히 論證된바있거니와 이는 契丹이 太宗以來 그主力을 中原 侵透에 投入하고 太祖時 建立한 東丹國의 首都를 忽汗城에서 現遼陽으로 撤收後는 그積極的인 經營이 中斷됨에 따라 이미 經略한 渤海故地에는 兀惹 定安國等 群少國家가 蠢動하고 高麗는 그의 北方開拓을 進行시키는 한편 契丹當面の 敵인 宋과 海上으로 連絡하는等 契丹으로서

는 實로 後顰의 患이 憂慮되었던바 이로서 그 銳鋒을 東方에 轉換시킨 것으로 보이며 契丹의 第一次 高麗侵入이 別로 領土의 野心은 없었고 다만 高麗에 一擊을 加함으로써 朝聘의 永續을 希求하였음은 그 結末(註十一)에 있어서 高麗가 和를 請하자 統和二年二月의 女眞討伐로서 確保한 江東二百八十里의 女眞居住地를 高麗에 割與하고 所虜의 人畜을 贖還하는等 契丹으로서의 實로 駭怪한 講和條件을 甘受함으로써도 推測할 수 있다.

그러나 契丹은 비록 高麗에 對한 領土의 野心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物質面의 魅力만은 가지고있었음은 그들이 江東二百八十里를 讓步한 表面의 條件이 高麗로 하여금 그地域에 五城을 築하고

「所貴交通車馬。長開賞觀之途」

를 希望하였음으로도 알수있거니와 聖宗統和二十三年(高麗穆宗八年)에는 兩國間의 互市場인 權場이 保州에 開設됨으로서 兩國間의 經濟的 接觸에 劃期的인 進展面을 보였던 것이다.

保州權場設置에 關하여서는 遼史(卷十四)聖宗本紀統和二十三年丙戌條에

「復置權場於振武軍」

이라하여 振武軍의 權場設置만을 記錄하고있으나 遼史(卷六〇)食貨志 下에는

「二十三年・振武軍及保州並置權場」

이라고 하여 振武軍과 同時에 保州權場이 設置되었다고 遼史(卷三八) 地理志에도

保州宜義軍節度 高麗置州 故縣一曰來遠 聖宗以高麗王詢 擅立問罪 不服 開泰三年 取其保定二州 統和末 高麗降 於是置權場(下略)

이러하여 亦是 保州棺場이 統和末에있었다고하는것을 보면 契丹을 統和二十二年 高麗睿宗時 義州로 改稱된 保州에 權場을 開設하여 高麗女眞等과 交易을 希望한것으로 보이며 高麗로서도 아무런 異議도 提出치 않았음을 보면 그 當時까지는 保州權場設置에 對하여는 別로 危懼心을 품지는 않았던것 같다.

그러나 第一次講和以後의 兩國間의 姑息의 平和狀態는 顯宗元年十一月을 期하여 高麗王室의 繼承問題로 因한 庚兆의 弑逆에 對한 問罪를 口實로 四十萬의 大軍으로 侵入한 所謂 第二次高麗侵入以後 再三再四의 契丹軍에 依한 高麗侵入으로 兩國關係는 極度로 惡化하였던 것이다 契丹의 第二次高麗侵入動機는 이미 池內博士에 依하여 그가 어떠한 確固한 目的이 있었던것이 아니고 多年間 蕭太后의 攝政下에 있던 聖宗이 母后의 死後 自己權力을 行使하고 高麗顯宗을 入朝시킬려고하는 無意味한 戰役이었다고 論證한바 있으나 이 論證은 어디까지나 第二次高麗侵入의 動機에만 適用되는 것이며 契丹開泰三年(顯宗五年)以後 同八年까지의 五年間 連三次의 侵入動機는 契丹側에서 強硬이 그 返還을 要求하여 이가 拒否되자 第三次高麗侵入의 直接的인 導火線이된 江東六鎮에 對한 契丹의 價値認識에 있다고 보는것이 穩當한것 같다.

契丹側이 第一次麗丹講和成立後 無心히 高麗에 讓與한 江東六鎮의 價値認識을 變更케한 가장 好例는 統和二十八・九年(顯宗元年,二年)의 第二次高麗侵入時 契丹이 經驗한 戰略地로서의 價値일것이다.

第二次高麗侵入의 經過를보면 統和二十八年中旬 渡江한 契丹軍이 第一着으로 義州街道三橋川畔의 興化鎮을 包圍하여 守將 楊規 李守化 등의 固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은 守將 楊規 등의 好戰도 그理由였으나 契丹으로서는 江東六鎮의 하나인 興化鎮의 地的條件도 考慮할

것이며 이어 亦是 江東六鎮의 하나인 通州戰에서 康兆를 捕殺하였으나 州城은 攻陷못한채 南侵한後 興化鎮通州城兵의 合勢로 一旦 契丹兵에 略取된 郭州를 回復케한바 以上 三鎮은 모두 契丹의 高麗侵入時 그 通路에 一大障壁을 形成하고 있었으며 特히 그의 班師時 高麗側의 逸擊으로 龜州及 鴨綠江邊의 大敗는 高麗史(卷九四) 楊規傳에 詳記되어 있을뿐아니라 이가 地理的條件과 關聯性있음은 遼史(卷十五) 聖宗本紀 統和二十九年正月乙亥條에

(籍)
「班師 所降諸城復叛 至貴州南峻嶺谷 大雨連日 馬駝皆疲 甲杖多遺棄 霖及得渡」

라고하여 그의 軍事的失敗를 地形과 大雨에 憑藉함으로도 알수있다 그들이 第二次 高麗侵入에 있어서의 軍事行動의 受難經驗은 契丹으로 하여금 十七年前에 다만 朝貢路의 開拓과 麗丹 兩國間의 交易圓滑을 圖謀하여 高麗에 讓與한 江東 二百八十里가 큰 禍根으로 反影되었지 않을까.

다시 交通路로서의 江東六鎮의 價値를 評價하여보면 顯宗十六年 契丹側에서 提議된 假道問題에서 그 一面을 엿볼수있다.

契丹의 假道問題에 對하여는 高麗史(卷五)顯宗十六年 閏五月甲子條에

「契丹遣御院判官耶律骨打來 請假道如東北女眞 不許」

라고 하여 東女眞에 到達하는 通路로서 高麗國內를 通過할려 하였던 것이다.

이 契丹의 假道問題의 提議는 威興을 中心으로 하는 女眞의 諸部落인 蒲盧毛朵部內의 兀惹遺民素出에 있었음은 遼史(卷十七) 聖宗本紀 (註十三)
太平六年四月戊申條에

「蒲盧毛朶部 多兀惹戶 詔索之」

라고 하는바로 알수있거니와 聖宗太平六年은 前記한 契丹의 假道提議가 있던 顯宗十六年에서 一年後의 事件으로서 高麗의 假道가 拒否되자 不得已 契丹은 蒲盧毛朶部로 하여금 그部內의 兀惹部를 索出케 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契丹의 東北女眞經路이 第一次麗丹講和 成立以後부터 急進的으로 展開되고 있었음은 遼史(卷十三)聖宗本紀 統和十三年七月丁巳條에

「兀惹烏昭度 渤海燕頗等 侵鐵驪 遣奚王和朔奴討」

라하여 渤海故地인 忽汗城을 中心으로 한 渤海遺民의 部族政治體인 兀惹部에 攻略을 加하고 있음으로도 推測되거니와 이 征討에 對하여는 遼史(卷八五) 和朔奴傳에

(議)

(上路) 和朔奴知不能克 從副部置蕭恒德 擄地東南 循高麗北界面還 以地遠糧絕 士馬死傷 詔降封節

이라 하고 또 同書(卷八八) 蒲恒德傳에

(上路) 兀惹死戰 城不能拔 和朔奴欲引退 恒德曰彼屈置 吾奉詔來討 無功而還 諸部謂我何 若深入多獲 猶勝徒返 和朔奴不得已 進擊東南 諸部 至高麗北鄙 比還 道遠糧絕 士馬死傷甚衆 坐是削功臣官 十四年 爲行軍都部署 伐蒲盧毛朶部還.

라하고 同書(卷九四) 耶律韓臘傳에도 前二者와 거이 同一한 內容이 記載된 것을 보면 統和十三年에는 이미 當時의 鐵驪部居住地域인 河勒楚喀附近에서 瑚爾哈河流域을 攻略하고 長驅 咸興平野까지 侵攻한 (註十三) 뜻 하며 이經路은 비록 失敗는 하였으나 遼史(卷十三) 聖宗本紀 統和十四年十月戊午條에는 「烏昭度乞內附」라 하고 또 同十五年 正月에도 「兀惹長武周來降」이라 하여 契丹의 兀惹經路은 그目的을 達成한 것

으로 推測되며 同書聖宗本紀 統和十五年三月庚寅에는

「兀惹烏昭度 以地遠 乞歲時免進鷹馬貂皮 詔以生辰正旦貢如舊 餘免」
이라고 함을보면 物質面的 徵求도 活潑이 展開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現 咸興附近에 居住한 蒲盧毛朶部の 經路은 前掲한 和朔奴等の 兀惹征討가 蒲盧毛朶部 까지 미친 것이며 統和十七年九月以後 十九年三月以前에는 烏不呂에 依한 單獨征伐이 있었음은 이미 池內氏에 依하여 論證된바 이와같은 高麗東北面女眞의 經路에 가장 問題가 되는것
(註十四)

은 交通問題이다. 이 通路問題에 對하여는 統和十三年에 行한 兀惹征伐에 關한 前掲 論朔奴傳^{遼史卷九四}에「掠地東南 循高麗北界面還 以地遠糧絕 士馬死傷」이라고도 또 蕭恒德傳에「進擊東南諸部 至高麗北鄙 比還 道遠糧絕 士馬死傷甚衆」이라고도 耶律幹臘傳^{遼史卷九四}에도 同一한 內容이 記載되어 있음을 보면 契丹이 黃龍府를 起點으로 하여 松花江과 拉林河를 渡河 阿勒楚喀附近에서 東南下 拉林山을 南踰하는 一線과 阿勒楚喀上流에서 海蘭河를 따라 寧古塔에 到達하여 正南으로 張廣才嶺을 넘는 通路는 그距離上으로 보아 大端히 不便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特히 이通路는 女眞人國家인 金이 阿勒楚喀를 中心으로 東北界女眞에 攻略하게된 前後 卽 契丹末부터 金에 依하여 活潑이 使用되고 遼史에는 그使用에 對한 事實이 없음을보면 當時五國部の 最西邊이며
(註十五)
金代에는 胡里攻略의 治所인 現三姓에서 瑚爾哈河를 東南下하여 忽汗府에 到達하는 前者보다 迂廻하는 海東靑의 入手路인 鷹路를 繁繁히 使用한 것으로 推測한다.

契丹이 東北女眞에 到達하던 前記 三路가 그 距離上으로 보아 매우 不利하였음은 當時 契丹의 東女眞防禦의 邊要地인 黃龍府에서 阿勒楚喀(現河城)까지의 距離는 許亢宗奉使行程錄(大金國志卷四〇所收)에는

三百四十里 洪皓의 松漢紀間에는 三百二十五里로 되어있어大體로 三百三十里程度로 보면 大差없을것이며 다시 金上京에서 契丹時의 蒲盧毛朶部の 住地로서 金代에는 曷懶路로된 咸興附近까지의 距離는 金史(卷二十四) 地理志 上京路에 「至曷懶路一千八百里」로 되어 있음으로 前記한 黃龍府에서 金上京까지의 三百三十里를 加算하면 實로 二千一百餘里가 되는 것이다.

한편 契丹은 聖宗初의 二回에 걸친 鴨綠江邊의 女眞征伐後 統和九年에 建威寇・張化 來遠等의 三柵을 建立한바있거니와 江東六鎮만 完(註十六) 全이 制壓하면 鴨綠江口에서 遼江東北行하여 渤海時代의 西京鴨綠府인 現輯兒山을 經由하는 渤海時의 所謂 朝貢道를 取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九龍・淸川二江을 따라 分水嶺을 北踰 今滿浦鎮經由로 東北行할 수있으며 賈耽의 道里記에 依하면 渤海朝貢道는 鴨綠江口에서 中京顯德府까지 一千二百五十里이며 여기서 布爾哈圖河를 따라 東南下하면 黃龍府經由로 松花江과 拉淋江을 넘는 前記渤海時의 契丹道及至는 契丹時의 驛路等 보다 近距離였음을 推測할수 있거니와 契丹이 高麗의 東北界女眞의 攻略이 活潑이 展開되면 이에比例하여 交通路問題의 解決도 時急한 問題였을것이며 이러한 問題는 高麗의 第二次侵入을 前後하여 이미 契丹에서 檢討되고 있었지 않을까.

이 問題에 對하여는 遼史(卷十四)聖宗本紀 統和二十年七月辛丑條에

「高麗遣使來貢本國地理圖」

라하고 遼史(卷七十) 屬國表와 同書(卷一〇五) 二國外紀 高麗傳에도 이와 符合되는 記錄이 있음을 보면 當時 活潑이 東北 女眞에 攻略을 展開하고

滿盧 毛朶部 經略에는 交通的制約으로서 그 失敗를 自認하던 契丹

에 統和二十年에 이와같은 高麗地圖의 進獻이 있었음은 契丹의 東京 遼陽府를 中心으로 하여 東北女眞에 到達하는 通路 摸索을 意味하는 것이 아닐까 臆測된다.

以上 契丹의 第二次高麗侵入이 있던 統和二十八年前的 契丹의 對女眞事情으로 보면 江東六鎮은 統和十三年以後 그들이 敢行한 東北女眞 攻略의 進捗에 따라 過去使用된 幹線道路의 不便을 打開할 曙光을 던졌을 뿐 아니라 海上으로 그들의 宿敵인 宋國과 連絡不絶하던 高麗의 動態를 牽制할 수도 있었으며 한편 保州의 樞場을 通하여 高麗女眞等의 物資確保等 價値는 充分이 認識되었던 것으로 推測되는바 開泰三年以後의 兩國間的 衝突에 있어 契丹側의 江東六鎮還附強要는 그것이 單純한 開闢口實이 아니고 實로 契丹側의 切實한 要求였으며 이는 第二次侵入前에 이미 價値를 充分이 知悉하던 契丹이 그侵入以後 그 軍事行動이 主로 江東六鎮의 諸地域에서 掣肘바던바 많았다는 經驗과 그 班師時 楊規等의 邀擊으로 同地域에서의 慘酷한 受難은 契丹으로 하여금 江東六鎮의 還附를 加一層 渴望케 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三. 江東六鎮과 麗丹의 貿易

한편 江東六鎮에 對한 高麗의 立場은 太祖以來 國是로서 繼續進行하여오던 北界拓地와 女眞招撫策은 江東六鎮 二百八十里의 地를 確保함으로서 自然 境界線까지 到達한 것이며 同地域의 還附는 곧 傳來의 國是를 拋棄함을 意味하였을뿐 아니라 國土防衛上 西北界의 前哨인 鴨綠江口 一帶에 契丹이 軍事 交通 貿易基地를 占有하게 되면 高麗는 그自立조차 憂慮되는것은 能히 推測할수있는 問題이며 目前의 問題는 多年間에 걸쳐 獲得한 兩北面女眞에 對한 羈縻權을 侵犯當하는 것이다

高麗의 女眞에 對한 羈縻權은 高麗史(卷九五) 李資諒傳에

(宋帝) 密諭曰 聞汝國與女眞接壤 後歲來朝 可招諭數人偕來 資諒曰
女眞人面而獸心 夷獠中最貪醜 不可通上國 宋幸臣聞之曰 女眞地多產
珍奇 高麗壽與互市 不欲分利於我…(下略)

이라고 한것을 보던 高麗는 經濟的利益으로서 女眞問題에 對한 第三
國의 容喙를 回避한듯 하나 高麗史(卷五) 顯宗二十一年四月戊子條에

「東女眞曼鬪等六十餘人來 獻戈船四艘楫矢 十一萬七千六百

이라고 同五月乙卯條에는

東女眞奉國將軍蕭勿蓋等來 獻馬九匹 步船三艘 楫矢五萬八千六百及兵
杖

이라 한것을 爲始로 契丹侵攻이 尤甚하던 顯宗一代에 걸쳐 女眞은 高
麗에 多量의 武器를 供給하였으며 續資治通鑑長編(卷七四)大中祥符三
年十一月條에

詢與女眞合兵拒之 契丹大敗」

타하고 宋史(卷四八七)高麗傳에도

詢與女眞設奇邀擊 殺丹殆盡

이라고하여 聖宗統和二十八年的 第二次高麗侵入에는 女眞의 戰鬥力이
高麗를 應援한것으로 보아 高麗의 女眞羈縻權은 經濟, 軍事兩面에 걸
쳐 重大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편 高麗史(卷六) 靖宗二年四月
乙丑條에

東北女眞首領太史阿首聞等 五十九人來朝有司言 太史契丹名也 阿首
聞今卽歸化請改 授正甫 從之

타하고 그翌年인 二月己未條에는

西北路兵馬使 捕東女眞 交通契丹者 沙伊邏等五十五人 送于而京

이라하여 契丹과의 女眞鬪察에 對하여는 極度の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高麗史(卷七)文宗 元年二月丁卯條에도

都兵馬奏東蕃酋長阿宛幹 內附以來 久承恩賞 背我投丹 罪莫焉 其黨
首領 高之問等 今在蕃境 請密遣軍事 拘執入關 拷訊端由 依律科罪
從之

이라하는 것으로도 알수있는바와같이 契丹의 女眞鬪察과 女眞의 契丹
接近을 極度로 嫌惡하는 高麗로서 女眞의 住地였던 江東六鎮의 還附
強要는 女眞의 鬪察權은 勿論 이로서 國防 外交 通商의 要衝地에 對
한 侵犯이라고 看做한것은 充分이 推測할수 있을뿐 아니라 이모달미
아마 造成된 高麗의 契丹에對한 反感과 疑懼心은 兩國貿易의 性格을
畸形的方向으로 展開하게 하였다.

그 가장큰 問題가 契丹側에서 提議한 權場再開問題에 對한 高麗側
의 態度이다.

이에 對하여는 高麗史(卷十)宣宗三年五月丙子條에

(上略)又遣告奏使尙書右丞禕瑩. 時遼欲於鴨綠江將起權場 故請罷之
라하여 統和二十三四年(穆宗八年)에 開設된 保州權場을 約八十年이나
經過한 高麗宣宗三年(遼大安二年)에 契丹側에 依하여 鴨綠江邊에 開
設이 提議됨은 보면 保州權場은 統和二十八年의 第二次高麗侵入以後
自然閉鎖되어 其間 再開를 보지 못한듯하다. 半農半牧의 契丹民族이
그들의 國際的地位의 向上에 應分한 生活營爲에는 宋・回紇等の 物資
와 同一하게 高麗物資도 必要하였을 것이며 鴨綠江邊에 權場을 開設
하여 必需品을 獲得하려는 心算에서 提議된것으로 보이나 高麗에서는
이미 前述한바와같이 江東六鎮問題로 刺激받던 鴨綠江口에 權場을 設
置하여 兩國間에 새로운 紛爭을 惹起할 口實의 造成을 憂慮하여 이를

拒絕한것은 當然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契丹은 榷場設置에 對한 希望을 撤回하지 않았음은 高麗史(卷十)宣宗五年二月甲子條에

「以邊議置榷場於鴨綠江 邊遣中樞院副使李顏 托爲藏經燒香使 往龜州 密備邊事」

라고하여 初回의 榷場設置提議後 二年을 經過한 宣宗五年에 李顏으로 하여금 燒香使의名으로 第二次高麗侵入時 그 撤軍을 邀擊하여 大勝한 龜州에 派遣하여 不意의 侵攻에 待備케 하였음을보면 契丹側의 榷場設置要請은 熱烈하였으며 高麗側에서는 그要請이 單純한 商行爲의 希求라 하기보다 一種의 政治攻勢로 看做된 듯하다. 高麗에서는 이에 對策으로서는 前記한 李顏의 龜州派遣으로보아 一面에는 防禦態勢를 갖추는 同時에 同年九月에는

遣太僕少卿金先錫 如遼乞罷榷場

이라는 바와같이 金先錫을 契丹에 派遣하여 平和의 解決을 呼訴하는等 兩面政策으로 頑強이 拒否한 結果 契丹에서도 不得已 榷場設置問題를 拋棄하고 其年十月에는 그詔書를 金光錫의 歸國에 托送하여 高麗로서 (註十九)는 榷場問題에關한 自己意思를 貫徹시켰던 것으로 其後 契丹滅亡時까지 榷場設置問題는 兩側 모두 提議하지 않았거니와 高麗史(卷十一)肅宗六年八月乙巳條에

都兵馬事奏 今遼東京兵馬都部署 移文請罷靜州管內軍營 頃在大安中 遼欲鴨綠江 置亭子及榷場 我朝遣使請罷 遼帝聽之 今從宜 制可.

라고 함을보면 契丹側이 鴨綠江邊에 있어서의 榷場設置計劃을 拋棄한 것은 高麗의 契丹에對한 警戒心을 多少緩和시켜 兩國國交上 好結果를 招來하였던 것으로보인다. 이로서 麗丹兩國間에 確實視되는 榷場設置

期間은 兩國國交二百年間에 統和二十三年에서부터 所謂 第二次侵入이 敢入되던 同二十八年(顯宗元年)까지의 其間 五個年에 지나지않는 短期이었으며 國境을 같이하고있던 隣接國家로서는 至極히 奇現象이라 하겠다.

高麗王室은 元來 太祖의 出자가 龍女. 商舶等과 關係되어 그 發迹이 海上과 密接한關係가 있었을뿐만아니라 貴族政治에있어 貴族의 代表者로서의 王室은 그 地位維持의 必要上 太祖以來 資本主義的 貿易業者로서 隣接國家에對하여 主權者의 特權으로서만 行할수있는 所謂 朝貢의 形式을 取한 貿易을營爲하였던 것이며이러한 性格을 가진 高麗의 對宋朝貢에 對한 弊端이 宋國內에서 論議되었음은 이미 恩師 金庠基教授께서 精細히 論證한바 있거니와 高麗의 契丹에對한 權場設置反對는 (註二十一) 契丹과의 物資交易 그 自體를 回避한것이 아니고 다만 國土防衛上 不得已 取한 措處인以上 이 原則에 抵觸안되는 朝貢貿易은 이미 權場開設을 反對한 高麗로 보면 對契丹貿易에는 絶好의 制度였을 것이며 高麗史(卷六)靖宗四年七月條에

金元沖還自契丹(中路)詔曰省所上表謝恩 令朝貢並進捧金吸瓶・銀藥瓶・紵布・貢平布・腦元茶・大紙細墨・龍鬚蓆席等事・具悉

이라함으로 兩國間의 朝貢貿易의 一面을 窺知할수 있거니와 朝貢에對하여는 그에 應分한 反對給付로서 回賜品을 取得할수있으니 契丹側의 回賜品의 數量과 種目等이 契丹國志 外國貢進物에도 高麗의 對契丹朝貢品과같이 記錄되어 兩國間에는 朝貢貿易이 盛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朝貢貿易은 特定된 供給需要者間의 去來였으나 이와 別途로 封冊使, 正旦使, 生辰使 其他 여러名目으로 交換되던 兩國使臣의 夾

帶貿易 或은 이를使臣에 同伴入國하면 商人에 依한 商行爲가 있는바 이가 量的으로 相當한 比重을 찾아하고 있었음은 이미 遣宋高麗使臣의 商行爲로 因한 國家的 體面의 損傷을 痛嘆하여 成宗에 上疏한 崔承老의 上疏文中에도 보이며 이弊端이 容易하게 是正되지 않고 繼續行(註二十二)하여지고 있었음은 高麗史(卷三十二)明宗十三年八月條에

是月兩府宰樞奏 每歲率使如金者 利於懸遷 多賸土物轉輸之弊 驛吏苦之夾帶私櫃 宜有定額 違者奪職 詔可(下略)

이라하는 것을보면 契丹을 滅亡시키고 이에 交替한 女眞民族國家인 金에 派遣되던 遣金使臣들의 夾帶貿易이 論難되고 있었음을 보면 이와 같은 形式의 貿易은 麗丹兩國의 使臣來往에도 能히 推測할수있는 問題다 麗丹兩國의 使臣貿易의 一例를보면 高麗史(卷九五)邵台輔傳에 (上略) 奏北路邊城將士 多自南州縣充入 故丁田在遠 賈產貧乏 脫有兵事 並爲先鋒 自今令入遼使臣 揀壯健者爲兼從 因使偵察疆域事勢 且有互市之利 人必競勸 從之

라하여 此路邊城將士의 生活保障策으로서 壯健者를 選拔入遼(契丹)使臣에 同伴케하여 商行爲를 營爲시키는 同時에 疆域事勢를 偵察케하자는 邵台輔의 一石二鳥의 名案은 當時 麗丹兩國간의 來往에 隨伴되는 使臣貿易의 形態는 當然之事로 看做되고있었다는 듯하며 高麗史(卷十) 獻宗元年五月癸丑條에

「東京回禮使高遂來 遂私獻綾羅彩段甚多」

라고하여 非但 使臣의 夾帶貿易은 高麗의 遣丹使臣에 만 있었던 것이 아 니고 契丹 東京回禮使의 入麗에도 「私獻」의 形式으로 綾羅彩段等이 交易된 것을 보면 麗丹간의 夾帶貿易이 權場의 閉鎖以後 有力한 物資 交易手段이었음을 推測할수있다.

高麗王室이 入麗使臣과 商人들의 寄宿의 便利를 圖謀하여 顯宗二年에는 迎賓. 會仙等의 客館을 設置하였으며 文宗九年에는 새로히 娛賓. 清河. 朝宗等의 諸館名이 보이는바 契丹의 貿易業者들도 이들 客館을 利用하고 있었음은 充分이 推測할수 있거니와 文獻備考(卷一六 (註二十四))

四)市糶考二市高麗文宗十六年條에

「設遼國買賣院於宣義南」

이라고하니 麗丹兩國間의 交易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이는 買賣院은 棧場이 이미 閉鎖된 當時 使臣夾帶貿易과 入麗契丹 商人의 來往이 漸繁하였음을 證한다고 보아도 좋을것이다.

그러나 契丹과의 使臣貿易에는 宋의 船舶에 依한 多量의 積載能力에 比하여 陸路로 夾帶하게 됨으로 그物資의 質과 量에 있어 많은 制限을 받았음을 推測되거니와 使臣에 同伴入國하는 商人들은 그에應分한 手數料 或은 周旋料支拂과 中途의 危險性을 무릅쓰고 入國하는 만치 그價格도 相當히 高價로 됨은 當然한 일이며 그 適例는 高麗圖經(卷六)宮殿・長令殿에

(上略) 賈人至境 遣安迎勞 舍館定然後於 長齡殿受其獻 計所直於方物數倍償之

라고하여 宋商의 例이지마는 그價格이 高價였음을 보면 交通上 宋商보다 物品運輸에는 不利하던 麗丹兩國의 貿易에는 그量과 價格에 相當한 見解의 差異가 發生하였음을 推測하는바 이 打開策으로는 兩國間의 接境地域에서 必要에 따라 密貿易을 하는수밖에 없다. 高麗時代의 對北方民族에 對한 密貿易은 高麗史(卷一一〇)肅宗六年六月辛丑에

定州長令男 盜官庫鐵甲四部 賣與東女真 事覺伏誅

타라고 또 高麗史(卷二十二) 高宗三年閏七月辛未의條에는

先是 金再牒 乞糶 國家令邊官 拒而不納 自去年 金人因兵亂 資調 爭
賣珍寶 民饑 膠州關外 互市米穀 至以銀一錠 換米四五石 故商賈爭射
厚利 國家雖嚴刑 輸貨 然猶貧潰無厭 潛隱互市不絕…(下略)

이라고 하는것을 보면 國家에서 嚴禁함에도 不拘하고 機會를 타서는
兩北接壤地에서 密貿易行爲가 行하여지고 있었으며 이는 또 高麗史
(卷八五)刑法二 恭讓王 三年三月에 上疏한 中將郎房士郎의 上疏文中
에도

(上略) 今也令非嚴也 征商之徒 什五成群 牽牛帶馬 懷令挾銀 日趨異
城 驢騾鷲鈍之物 遍於國中 願自今 潛行越江 賣牛馬 及官印之馬 賣
彼不還者 以違制加刑

이라고 한것을보면 高麗一代를 通하여 北方民族과의 密貿易은 接壤地
帶에서는 盛行되어 그 地勢上 到底히 防止할수 있는 程度이었으며 거
이 默認하고 있는 狀態에 있었던듯 하다.

그뿐아니라 이러한 接壤地帶를 通하여서의 密貿易은 一般人의 對北
方民族의 密貿易을 防止하여오던 高麗王室 自體조차 必要에 따라서는
兩北面兵馬使를 通하여 直接 密貿易을 하고있었음은 高麗史(卷二十)
明宗十五年正月辛丑條에

西北面兵馬使李知命 獻契丹絲五百束 知命之陞爵也 王召入內殿親諭
曰 義州雖禁兩國互市 卿官取龍州庫紵布 市丹絲以進 故有是獻 毅宗
時 凡金國所贈 絲絹等物半入內府 以需御用 半付大府 以充經費 王卽
位以後 悉入內府 賜諸嬖倖 府藏虛竭 徵求至此

라고하는바 이는 契丹滅亡後六十年을 經過한事件이나 高麗西北面防衛
의 最前哨地였던 龍州에 當時의 交易에 貨幣價値를 가졌던 紵布庫를

두었다는 그 自體부터가 殊常하며 財政 貿易事務를 取扱한것으로 推測되던 大府寺의 契丹絲枯渴을 보게되자 國禁을 어기고 西北兵馬使로 하여금 購入케 함은 偶發的인 事件이 아니고 高麗의 貿易方法으로 繼續되던 常習的인 行爲가아닐까.

특히 契丹絲의 購入場所가 麗丹兩國間에 最初로 權場이 開設되던 往年の 保州이며 또 邊城將士의 貿易利用은 이미 前揭한 邵台輔의 上疎에도 보이는바 契丹滅亡前에도 이미 鴨綠江口에서 龍州其他地에 設置된 浣布庫等으로 必要한 物資의 交易을 繼續하여 權場貿易의 拒否로서 입게되던 交易面의 空白을 補充하였지 않을까 한다.

四. 兩國貿易의 主體

麗丹兩國間에 交易되던 物品의 品目과 量에 對하여는 高麗史와 遼史의 兩者가 모두 明確치않음으로 그 正確한 實情을 把握할수 없다. 이에 關한 唯一한 資料로 看做되는 契丹國志(卷二十一)에 記載된 外國 貢進物品과 每次回賜되던 品目과 數量을 中心으로 敷衍說明하여 그 一面이나마 推測할수 밖에 없다.

(1) 高麗의 對契丹輸出物品

(가) 金・銀・銅

高麗時代의 金銀의 產出은 高麗史에는 具體的인 記錄이 없음으로 알 道理가없으나 高麗圖經(卷二十三) 雜俗二 土產에서

「地少金銀・而多銅器」

라하여 金銀의 產出을 過少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銀의 產出이 比較的 多量이었음은 高麗史(卷四) 顯宗十三年五月乙亥에

「溟州上言銀鑛出於旌善縣」

이라하고 또 海東譯史(卷二十六) 物產志一에 收錄된 寶藏論에는

「銀外國四種 新羅銀 波斯銀 林邑銀 雲南銀並精好」

타하여 新羅銀을 높이 評價하였으며 元史(卷十五) 世祖本紀 至元二十五年四月癸酉條에도

以高麗國 多產銀 遣工卽其地 相榜近民 冶以輸官

이라 하는것을 보면 元世祖時代에는 元에서 그 開發에 着手하였거니와 高麗肅宗以後銀瓶이 一種의 貨幣로서 流布되었음을 보면 高麗銀生産은 相當이 豊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産 金銀이 對契丹輸出品으로 使用되고 있었음은 契丹國志(卷十二) 外國貢進禮物에

「金器二百兩 金抱壯一條五十兩 金沙羅五十兩 金鞍轡馬一匹五十兩」

등의 多量の 金製品이 輸出되었으며 또 前掲한바 있는 靖宗四年七月에 金元沖이 契丹에서 齎來한 貢進物에 關한 詔書中에도

「金吸瓶 銀藥瓶」

등의 品目이 보이는것으로 보아 當時 國際的貨幣로서 契丹에 輸出되었음을 알수있다. 銅의生産에 對하여는 高麗史(卷八五)刑法二 恭讓王三年三月에 中將卽 房士郎의 上疏文中

(上略) 鑄銅本土不産之物也 願自今 禁銅鐵器 傳用瓷木 以革習俗

이라하여 鑄銅은 高麗에 産出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前掲한 高麗圖經에는 高麗의 産銅이 豊富함을 말하고있으며 高麗銅은 後周. 金. 宋等에도 輸出되고 있었던 重要商品이었던바 李朝時代까지도 中國人에게 愛用되었음은

(註二十五)

朝鮮賦에

「五金莫究所産 最多者銅」

이라하고 그註에

「地產銅 最堅而赤 食器匙箸 皆以此爲之 卽華所謂 高麗銅地」

라고하는것을 보면 非單 高麗時代뿐 아니라 古수를 통하여 널리 大陸에서 人氣를 獨占하던 商品이다. 이가 契丹에 輸出된은 契丹國志 外國貢進禮物에

「銅器一千勛」

이라함으로 알수있다.

(나) 布帛類

韓半島에서 生産되는 布帛類는 그 生産量에서나 또는 品質에 있어서 優秀함은 古代로부터 中國側諸書에 散見할수 있거니와 絺布의 經濟的 價値에 對하여는 高麗圖經(卷三)城邑 貿易에

(上略) 男女老幼 官吏工技 各以其所用 用以交易 無泉之法 惟^{●●●●}絺布銀[●]瓶[●]以準其直

이라하여 銀瓶과 同一하게 高麗에 있어서는 交易에 重要的 媒介物로서 널리 通用됨으로도 알수있으며 이가 北方系民族에 까지도 愛用되어 通貨의 價値를 保持하고 있었음은 明宗年間に 金國과 渡江密貿易에 絺布가 使用됨은 이미 說明하였거니와 高宗八年에 蒙古皇太弟鈞이 高麗側에 要求한 物品中에

「細紬三千匹 細苧二千匹 縣子一萬勛」

(註二十六)

等の 品名이 있었음을보면 北方民族과의 交易에 있어서 高麗產布帛類의 聲價는 能히 推測되며 契丹國志 外國貢進禮物에도 金製品에 이어

「紫花綿紬五百匹 白綿紬五百疋 細布一千疋 粗布五千疋」

等の 品目과 數量이 記錄되어있고 金元沖齎來의 契丹主 詔書中에도 「絺布」「苧平布」等の 高麗產布帛類의 品目이 보임으로 보아 이가 兩

國貿易에 있어 高麗의 重要한 契丹輸出品이 었음을 推測할수있다.

(다) 工藝品

高麗工藝品으로서 널리 大陸諸國에 알려진것은 龍鬚草席과 藤器 등이 있다.

龍鬚草席이 高麗의 特產品이 었음은 宋史外國傳高麗에도 記錄되어 있거니와 이의 契丹輸出에 對하여는 遼史(卷二十三) 聖宗本紀 統和二十六年二月丙寅條에

「高麗進龍鬚草席」

이라하고 同書(卷七〇) 屬國表統和二十六年五月欄에도

「高麗進文武兩殿 龍鬚草地席」

이라함은 龍鬚草席이 本格的인 麗丹關係가 樹立된 直後부터 契丹人에 愛用된 것이며 前揭한바있는 靖宗四年 金元沖에 依하여 齎來된 詔書中에는 「龍鬚草席」의 名으로 列擧되고 있음을 보면 그輸出은 長期間 繼續된듯하다.

龍鬚草席에 對하여 一言하고자 함은 그材料問題다. 金岸基教授께서는 龍鬚草席의 材料를 莞草로 推測하시고 또 莞席이라고도 指稱하셨

으나 王雲의 鷄林志에는
(註二十七) (註二十八)

高麗人多織席 有龍鬚席 藤席 今航人販至者 皆草席織之(下略)

이라고한 一條는 그文面으로부터는 龍鬚席 藤席 등과 그當時 宋에서 販賣되던 草席과는 嚴然히 區別한듯 하니. 이는 北塞紀略 孔州風土紀에

龍鬚產於明川鏡城海中 一莖直生長數尺 細如筋堅如骨 北人用挿筆管 謂之龍鞭筆 李白詩云 草捲龍鬚席

이라고하는 東北海岸 明川附近特有植物인 龍鬚草으로 만들어진것으로 보거니와 李白의 詩句에도 該이름이 있으니 龍鬚草席은 唐代부터 人

口에 膾炙되던 物品이었음을 알수있다.

한편 龍鬚草席과 같이 高麗特産으로서 알려져 있던 藤器는 高麗圖經(卷三二) 器皿에 藤椀과 藤尊에 對한 用途가 記錄되어있는바 其中에서도 藤籃에 對한 說明中에 王府에서 使用되던 高級藤籃은 「其直準白金一斤」이라고하니 그가 高級工藝品이 었음을 알수있다.

契丹國志 外國進貢禮物에 「藤造器物 五十事」라고함은 藤籃等の 高級工藝品이 契丹에 輸出된듯하다.

(라) 紙墨類

韓半島에서 生産되는 紙類는 그名稱만 보아 다 白硯紙(白紙 繭紙라고도 稱함) 翠紙 靑磁紙等 그種類가 많았으며 古代부터 大陸貿易品의 大宗으로 隣接諸國民에 愛用되어 왔거니와 高麗時代의 楮紙生産에 對하여는 高麗古都徵(卷三) 公廩에 高麗史(卷五三) 五行志一에 「元宗十二年二月戊申 楮市橋邊 民家三百餘戶火」라는 一條를 說明하여

「案楮市 卽紙廩也 今南大門外 并城西 上稱下紙廩 下紙廩有橋焉 俗名水陸橋 或馬市橋…中略…其紙廩之名似麗時 此卽麗史所謂楮紙橋與」라고하여 高麗時代의 楮紙橋를 李朝時의 水陸橋或은 馬市橋로 比定하였으나 그與否는 且置하고 高麗時代開京內에 楮紙橋라는 固有名辭가 있어 매우 繁雜하였음은 「三百餘戶火」라고하는바로도 알수있으며 開城의 南大門外와 城一帶의 紙廩의 李朝時代까지도 旺盛하였음은 高麗時代以來의 傳統이 아닐까한다.

筆墨에 對하여는 高麗圖經(卷二十三) 雜俗土産에

松烟墨貴盤州者 然色昏而膠少 侈多沙石 黃毫筆軟弱不可書 舊傳爲猩狸毛 未必然也

라하여 高麗名産인 松烟墨과 黃毫筆에 對한 酷評을 加하였으나 鼠狸尾

筆, 飛瑁筆, 松烟墨, 猛州墨, 順州墨, 龍團墨의 名은 일찍부터 中國의 文人墨客間에 珍重되어 近世까지도 輸出되어오던 物品이며 이러한 高麗의 紙墨類가 北方新興民族들도 魅力을 느끼고있었음은 金國의 章宗이 高麗의 靑磁紙를 愛用하였다하며 麗元間의 接觸初期인 高宗八年(註三十一)에 蒙古皇大弟 鈞이 高宗에 請求한 物品中에도 「龍團墨一千丁 筆二百管 紙十萬張」 등의 品目이 보이거니와 이가 契丹에도 輸出됨은 契丹國志 外國貢進禮物에

「細紙墨不定數目」 이라하고 前掲 金元沖齋來 契丹詔書에도 「大紙細墨」 등에 品名이 보임으로 알수있다.

(마) 鷹鵠類

遼 宮中生活에서 鷹鵠은 實로 不可欠한存在였음은 그들이 四季를달리하여 行하여지는 捺鉢生活中 春季에 行하여지는 春捺鉢의 生活이 鈎魚와 障鷹放鵠의 生活이었음으로 도알수있거니와 鷹鵠에 對한 渴求(註三十二)는 매우 強하여 거이 信仰心에 가까웠으며 太宗誕生의 瑞祥을 白鹿과 함께 白鷹에 結付시키고 七鷹山, 白鷹山 등의 山名에까지 「鷹」字가(註三十三) (註三十四) 使用되었을뿐 아니라 遼史(卷九五) 耶律義先傳에

「耶律義先 鷹隼家奴健捷 比海東青鵠」

이라하여 人物을 評하는데 그 敏捷함을 鷹鵠의 尤品인 海東青에 比喻하였고 또 그 飼育에 있어서도 遼史(卷二十一) 道宗本紀 清寧四年十二月乙巳條에

「許士庶畜鷹」

이라하여 一般民에 그 飼育을 許한바도 있으나 그 三年인 同七年四月 辛未條에는

「禁吏民 畜海東青鵠」

이라하고 또 同書(卷一一〇) 張孝傑傳에는

帝(道宗)謂 孝傑可比狄仁傑 賜名仁傑 乃許放海東青鵞

이라고함을 보면 國家에서도 干涉을 하였으며 그가 契丹人の 生活에 있어서 重要한 一面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契丹人이 愛好하는 鷹鵞는 契丹自國內에서는 捕獲되지 않았으며 그 供給은 主로 現 烏蘇里江, 小白山脈一帶에서 沿海州에 걸친 女眞居住地域에 依存할수밖에 없었다.

(註三十五)

契丹에서 派遣되는 海東青使의 苛酷한 鷹鵞徵求와 暴行, 鷹鵞進貢에 對한 女眞人의 負擔過重은 尤甚하여 이가 女眞民族의 結束을 促進

(註三十七)

시킨 直接의 原因이 된은 史에 著名하거나와 한편 韓半島內의 鷹鵞事情을 보면 燃黎室記述(卷三) 世宗朝에 歷有建議 以海東進獻 減進貢金銀者 上曰·海東青得之最難 且食一雉 調養亦難」

이라하여 그 捕獲과 飼育이 困難은 있었으나 舊唐書(卷十二) 德宗本紀 卽位年五月丙子에

「詔諸州府 新羅渤海 歲貢鷹鵞 皆停」

이라고 한것을 보면 唐代에도 新羅에 依하여 輸出되었을뿐더러 그가 中國人에 絶讚을 받아 왔음은 海東譯史(卷二十七) 物產志에 收錄된 五雜俎에

鷹產於遼東 渡海而至登萊 其最神俊者 能見海中諸物 輒撲水而死 故中國之鷹 不及高麗產

이라하고 또 異名記에도

「登州海岸 有鳥如鵞 自高麗飛渡海岸 名曰海東青 擊物最健 善擒天鵝 飛時旋風 直上雲際」

라고 하는것으로도 알수있으며 近世에 이르기까지 大陸諸國에 多量으

로 輸出되었던 것이다.

우리民族이 自古로 鷹鷂類에 關心을 가지고 있었음은 歌謠, 詩調中에 鷹鷂에關한 語句가 屢出함으로도 알수있으며 그種類가 多樣이었음을 證하는 一例로서 作者未詳의 一詩人이

바람도 쉬어넘는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고개

山眞이 水眞이 海東靑 보라기라도

다쉬어넘는 高峰長嶺고개

그넘어 넘어왔다하면

나는 汗番도 쉬어넘어리라

하여 自己心靑을 鷹類에 假托하여 表現하는게있어 數種의 鷹種을 判別함을보면 그種類가 豊富하였을뿐아니라 우리民族의 鷹鷂에對한 趣味와 知識을 窺知할수있다.

高麗時代에 鷹鷂이 北方民族의 注目을 이끌었음은 金史(卷三) 太宗本紀 天會二年五月條에 曷懶路軍帥 完顏忽刺骨等이

「往者 歲捕海狗海東靑 高麗之境」

이리하여 高麗隣近에서 海東靑의 捕獲을 말하고 元이 高麗侵入前인 高麗十八年에 이미 高麗에 鷹鷂을 要請한바로도 알수있다.

遼丹兩國間에 鷹鷂이 交易되고 있었음은 遼史(卷十) 聖宗本紀 統和十三年五月壬子條에

「高麗進鷹」

이라하고 또 同書(卷七十) 屬國表 五月欄에도 同一한 事實이 記載되어 있음을보면 이는 그 前年十二月에 高麗에서 進한 伎樂이 契丹側에 拒否되자 그 直後 契丹人의 趣味를 考慮한 措置라고 推測된다. 이進 (註三十八)

應事實에對하여는 高麗史(卷三) 成宗十四年二月條에

「是月 遣李周禎 如契丹 獻方物 又進鷹」

이라하여 그 文面으로보면 李周禎의 遣丹事實과 結付되어 同年二月에 進鷹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나 이는 高麗史의 編者가 遼史에서 聖宗本紀統和十三年二月甲辰條에

高麗遣李周禎來貢

이라고하는 同年二月의 李周禎遣丹事實과 前掲한 同年五月의 進鷹에 關한 記事를 勳稿하여 連結시킨 記事인듯함은 前記 高麗史의 記事가 그 文面에 李周禎의 進貢과 進鷹에 關한 事實이 別途의 事實로서 解釋될뿐 아니라 日字表示의 干支가 欠함으로도 推測할수있다.

上記한바와같이 高麗東北界의 女眞에 對한 鷹鵠類의 徵求가 酷甚하던 契丹이 그 捕獲이 豊富하며 尤品인 高麗產 鷹鵠에 無關心하지는 않았을 것이어니와 그들이 屢次 東北女眞에 對한 鷹路確保의 努力을보면 史料의 欠乏으로 그 全貌는 把握할수 없으나 意外로 兩國間의 鷹鵠交易이 活潑하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이 以外에 高麗에서 輸出되던 對契丹 輸出品에는 海東靈草인 人蔘과 腦元茶, 穀物等이 있으나 割愛하기로한다.
(註三十九)

(二) 契丹의 對麗輸出品

(가) 稜羅 丹絲

契丹의 稜羅及 絲絹의 生産에 對하여는 信憑할만한 記錄이없어 論證하기 어려우나 胡峯의 陷虜記에 契丹上京의 狀況을 描寫한 文中에
(註四十)

西樓(上京) 有邑屋市肆 交易無錢而用布 有錦諸工作……(下略)

이라고 한것을 보면 稜錦等의 工作所가 上京에 設置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高麗圖經(卷二十二) 雜俗 土産에

(高麗) 不產蠶絲 其絲絨織絁 皆仰買人 自山東閩浙江來 頗善織文羅
花稜繫絲錦蜀 邇來北降卒 工技甚衆 故益奇巧 染色又勝於前日
이라고 함을보면 高麗의 稜羅, 錦蜀等 高級織物이 技術方面에 있어 染
色其他面에 契丹降卒의 援助가 많았음이 推測되거니와 이르면 契丹
의 稜羅等은 確實이 優秀한것으로 보인다.

契丹의 稜羅와 아울러 그의 絲絹이 名産物이 었음은 前揭한 明宗時
의 西北兵馬事 李知命의 丹絲密貿易事件과 東北女眞의 撫摩策에 絹絲
等이 使用된 例가 있음으로도 알수있거니와 이가 高麗에 輸出되고 있
었음은 契丹國志(卷二十一) 契丹每次回物件에 高麗에回賜한 品目中에
細綿綺羅稜 二百匹 衣著絹 一千疋
이 記載되어있고 또 前揭한바있는 東京回禮使 高途의 「遂 私獻稜羅甚
多」라고 한것을보면 相當한量이 稜羅와 丹絲等이 交易되고 있었다고
볼수있다.

(나) 家畜類

契丹은 그 出自가 鞍馬爲家로하던 遊牧民이었던만치 그들에 있어서
는 家畜飼育은 重要的 生計의 方途였으며 太祖時에 其后述律이

我有羊馬之富 西樓足以娛樂

이라고 渴破하여 太祖의 鎮州進軍을 挽留한바 있거니와 이와같은 羊
(註四十一)
에對한 財産觀念이 그의 滅亡時까지 繼續되었음은 天祚帝가 金軍의
追擊으로 敗亡途中의 記事인 遼史 天祚本紀 保大四年正月條에

時侍從 乏糧數日 以衣易羊

이라고 한것을보면 宋, 回紇, 大食等의 文物을 吸收하여 生活이 比較
的向上하였던 그 當時까지도 生命維持에 必需品이었다는 點으로도 알
수있다.

그들의 羊에對한 價値觀念은 非但 上記한바와같은 生活必需品에 拘
 치는것이 아니고 穆宗應歷二年以來 祭天의 犧牲物로서 重要的 年中行
 事였던 黑山祭祀와 戰勝時의祭祀等に 不可缺한 家畜이었으며 이가 契
 丹의 對外貿易에 大宗이었음은 遼史(卷四) 太宗本記 會同二年五月乙
 巳條에

禁南京(現 北京) 羈牝羊出境

이라하여 牝羊의 對宋貿易을 禁止하였고 또 遼史(卷六十) 食貨志에
 時(統和)北院天王 耶律室魯 以俸羊多 闕部人貧乏 請以羈老之羊及皮
 易南中之絹 上下爲史

이라하여 經濟狀況의 變動에따라 그 輸出은 禁止 또는 獎勵하여 國家
 에서 干涉을 加하고 있음은 契丹經濟에 있어서의 羊의 位置를 窺知할
 수있다.

契丹의 羊이 高麗에 輸入되고 있었음은 高麗史(卷九三) 徐熙傳에

遼寧贈以羈十首 馬百匹 羊千頭

라고 하는바 契丹의 第一次高麗侵入直後부터 大量의 羊이 齎來되었으
 며 遼史(卷一〇五) 二國外記 高麗傳에는 大安九年에

賜王運(宣宗) 賜羊

이라하고 또 契丹國志(卷二十一) 契丹每次回賜物件에는 「羊二百頭」가
 高麗에 回賜品으로 輸出되고 있음으로도 알수있다.

當時의 交通事情으로보아 大量의 羊은 그 輸送에 若干 無理가 있는
 듯하나 高麗史(卷十四) 肅宗十一年四月條에

遼 來遠抱州二城遺民 驅羊馬數百 來投

라고하여 鴨綠江邊의 契丹流民이 羊은 多量으로 保有한點을 보면 契丹
 의 高麗에對한 羊의 輸出은 高麗西北界에 居住하던 契丹人의 羊을 隨

時로 充當할 수 있었던 것이며 高麗에 있어서 羊의 用途는 分明하지 않으나 高麗圖經(卷二三) 雜俗 條에

有俗有羊豕 非王公貴人不食 細民多食海品

이라하고 또 同書(同卷) 屠宰에도

夷政甚仁 好佛戒殺 故非國王相臣 不食羊豕

이라함을 보면 當時 王室을 비롯한 一部特權層에는 羊肉을 食用으로 하는 風習이 있었으며 羊의 需要가 相當量에 達하였음은 契丹滅亡後인 毅宗二十三年에는 金國에서 二千口의 大量이 輸入됨으로도 알 수 있다. (註四十五)

다.

五. 結 言

以上에서 麗丹 兩國間에 行하여진 貿易關係를 論한바 高麗王室은 對宋貿易에 있어서는 朝貢의 形式을 取하여 回賜品의 利益을 獨占하고 入國外商에 對하여는 이를 厚待하는 한편 高麗圖經(卷三) 城邑 貿易에

高麗故事 每人使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 丹漆櫛帛 皆務華好 面金銀器用 悉王府之物

이라고 한것을 보면 貿易資金의 支出等을 兼하여 一種의 資本主義的 貿易業者의 面貌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契丹과의 貿易關係에 있어서는 相互間에 國境線을 같이한 隣接國家임에도 不拘하고 江東六鎮을 圍繞하여 惹起된 多年間에 걸친 熾烈한 衝突에 刺激되어 契丹側에서 提議한 互市場인 權場設置를 強拒하고 그 質과 量에 自然的 擊肘를 무릅쓰고 오로지 使臣貿易에 依存하였으며 機會에 따라서는 密貿易等을 敢行하는 등 實로 畸形的인 通商關係를 繼續하였던 것이다. 麗丹兩國

은 地理的으로는 互市場을 通하면 國民一般에도 그 利得의 一部나마 均霑할수 있는 條件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夾帶運搬으로 인한 交通上 諸制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王室과 貴族만이 그利得을 享有할수있는 跛行的인 貿易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高麗는 國家安全의 代價로 또 契丹은 對宋關係에 있어 後顧의 患을 끊는 代價로서 制限된 少量의 使臣貿易이 나마 決코 그것이 無意味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註

1. 高麗史(卷二) 太祖天授十四年參照
2. 高麗史(卷三) 太祖十九年九月
3. 今西 龍 朝鮮史の乘 一六八頁
4. 遼史(卷十六) 聖宗本紀太平二月條에 「獲撻魯河, 詔, 改鴨子河曰混同江, 撻魯河曰長春河」라 하여 鴨子河는 混同江의 改稱以前의 名으로 그位置에 對하여는 池內宏著 滿鮮史研究(中世第一冊) 一六一頁「鐵利考」及同書 二一八頁~二二八頁「遼代混同江考」參照
5. 東洋學報, 第五卷, 第二號「白鳥庫吉博士의 「朝鮮語と Ural-Altai 語との 比較研究」一五五頁參照

白鳥博士는 朝鮮語의 「오리」(鴨)는 Tunguse語로는 Waire로 鴨綠은 鴨子의 土音을 漢音으로 轉寫한것이아함

6. 高麗史(卷一) 太祖天授五年二月
7. 遼史(卷二) 太祖本紀天顯元年二月丁未의條
8. 高麗史(卷二) 太祖二十五年十月條
9. 統和二年二月 同三年正月에 行한 契丹의 女眞討伐에 對하여는 池內宏氏著, 滿鮮史研究(中世第一冊)에 收錄된 「遼의 聖宗의 女眞征伐」에서 그征戰範圍과 動機에 對하여 論證한바있으나 統和三年正月에서 始作된 女眞討伐에 對하여 和田 清氏は 東洋學報第六卷 第一號에 「定安國に就いて」라는 論文中에서 그目的은 渤海故地인 鴨綠江과 終佳江流域에서 渤海遺民들이 建立한 定安國에 對한 攻擊이라모하여 前記 池內氏의 論을 一部는 正한바있다
10. 兀惹部에 對하여는 池內宏著「滿鮮史研究」(中世 第一冊所收)「鐵利考」에 그部族의 名稱, 部族 崛起의 事情 住地에 對한 論證이 있는바 渤海遺民으로

三月 忽汗府是 中心으로 掘起하였다고하나 和田清氏は 東洋學報 第六卷 第一號에서 發表한 「定安國に就いて」頁 一三五~一三七에서 渤海中京顯德府是 中心으로 掘起한 渤海遺民이라고 論證된바있다. 兀惹部와 他部族 特別 鐵利와의 關係를 보아 筆者는 前說에 追從한다.

- 11, 池內 宏著 「滿鮮史研究(中世第二冊)『契丹聖宗の高麗征伐』 一九九~二六三頁
- 12, 前掲書 「蒲盧毛朶部口について」四三〇頁
- 13, 池內 宏著 滿鮮史研究(中世第一冊) 「鐵利考」
- 14, 「池內」宏著滿鮮史研究 中世第二冊 「蒲盧毛朶部口について」四二六~四三〇頁
- 15, 池內宏 滿鮮史研究(中世第一冊) 「鐵利考」一三一頁~一六〇
- 16, 遼史(卷十三) 聖宗本記 統和九年二月甲子條에 「建威冠 抵化 來遼三城屯」
- 17, 滿洲歷史地理(第一卷) 松井等氏 「渤海國の疆域」四一六頁~四一七頁
- 18, 新唐書(卷四一) 地理志
- 19, 高麗史(卷十) 宣宗五年十月의條 「契丹詔文」
- 20, 稱葉岩吉著 「朝鮮史」頁八五~九〇
- 21, 金庠基教授著 「東方文化交流史論攷」所收麗宋貿易小考 頁四七~五八
- 22, 高麗史(卷九三) 崔承老傳
- 23, 高麗史(卷四) 顯宗二年四月丁卯條에 「置迎賓 會仙二館 以待諸國使」라고 記載되어 있는바 東史綱目六下顯宗二年條에는 「置迎賓 會仙館 時宋·契丹女眞·南蠻諸商 往來絡繹 故置二館 以待諸者」하여 前掲高麗史를 數行하고 있으나 이가 契丹을 包含시킬은 誤認이며 顯宗二年은 所謂契丹의 第二次高麗侵入으로 契丹商人의 入國이 있을수없다
- 24, 高麗史(卷七) 文宗九年二月戊申條 外商의 客館에 對하여는 高麗圖經(卷二十七) 官舍客館에 그 位置에 對하여 考說된바있다
- 25, 海東繹史(卷二十六) 物產志一 參照
- 26, 高麗史(卷二十二) 高宗八年八月條
- 27, 金庠基著 「東方文化交流史論攷」七七頁
- 28, 說郛正編局六十所收
- 29, 海東繹史(卷二十七) 物產志二 紙
- 30, 上 同
- 31, 海東繹史(卷二七) 物產志二 書目漏에 「金章常書高麗有磁紙」
- 32, 遼史(卷三十二) 營衛志(中)에 春捺鉢地인 鴨子河灘의 生活이 詳記되어있거니와 契丹人의 障屬放歸에 對하여는 이 밖에도 遼史地理志(卷四

- 十) 南京道 滌陰縣의 徐昌祚의 燕山叢錄(遼史拾遺卷十七) 續資治通鑑長篇(卷八一) 등에서 散見할 수 있으며 遼史拾遺(卷十三)에 記載되어 있는 張舜氏의 使遼錄에도 「北人打圍 一歲各有處所……二月三月放鴿號海東青打鹿」이라 하고 있다
83. 遼史(卷三) 太宗本紀(上)에 太宗의 誕生에 對하여 唐天復二年生, 神光異 常靈者獲白鹿白鷹 人以為瑞」이라 하고
34. 遼史穆宗本紀 應曆七年十月에는 「獵于七鷹山」이라 하고 遼史(卷六七) 遊幸表 穆宗應曆九年二月欄에 「獵于白鷹山」이라 하여 山名에 鷹字를 使用함
35. 海東青鷹의 產地에 對하여는 契丹國志(卷十) 天祚帝紀 天慶四年條에는 「女眞東北 與五國爲隣 五國之東 隣大海 出名鷹 自海東來者 爲之海東青」이라 하고 葉子奇의 草木子(遼史拾遺卷十一所收)에는 「海東青鷹之至 俊者也 出於女眞」이라 하고 蘇金紀事에도 「海東青出於女眞東北」이라 하여 海東青은 마치 沿海岸附近에서만 捕獲되는 듯 하나 楊賓의 柳遊記略(卷六)에는 「遼以東 皆產鷹 而寧古塔尤多」라고 하는 것을 보면 小白山脈 一帶에서도 捕獲된 듯 하다
36. 海東青使의 女眞人에 對한 暴行은 洪皓의 松漠記聞 契丹國志(卷十) 天祚帝紀 天慶四年條 등에 明記되어 있으며 大國의 權勢를 믿고 女眞人의 婦人에 對한 暴行과 物資의 掠奪等은 매우 甚하였다 한다
37. 東都事略(卷一百二十四) 附錄二 及 契丹國志(卷十) 天祚帝紀 天慶四年條參照
38. 遼史(卷十三) 聖宗 統和十二年 十二月戊子條에 「高麗進妓樂 却之」라고 하고 高麗史(卷三) 成宗十三年에는 月과 干支의 表示도 없이 「遣契丹 進妓樂 却之」라 하나 高麗의 記事는 그 文面으로 보아 遼記事를 剽竊한 듯 하다
39. 契丹國志(卷二十一) 外國貢進禮物
40. 五代史(卷七三) 四夷附錄 第二所收
41. 五代史(卷七二) 四夷附錄 第一
42. 羊이 契丹人의 祭祀의 犧牲으로 供用됨에 對하여는 遼史(卷六) 穆宗本紀 應曆二年九月戊午條에 「詔·以先平蔡割日 用白黑羊玄酒祭天」이라 하여 應曆二年九月부터 使用되었다 한다
43. 遼史(卷五三) 嘉儀下
44. 遼史(卷五一) 禮志(三) 軍儀
45. 高麗史(卷十九) 毅宗二十三年七月에 「金遣橫賜使 符寶郎徒單懷貞來 賜羊二千口」